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 최종 보고

튀르키예의 **K**선교사

어느덧 2023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의 지진이 언제 있었냐는 듯 봄은 오고, 꽃은 피고, 여름의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상흔은 여전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희는 정부청과 협약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첫 수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0회 수업을 진행하였고, 아이들에게 터키 상담선생님들이 투입되어 미술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위한 미술 도구와 간식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6월 13일(화)부터는 새로운 반과 함께 다시 10회의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밝은 모습이었고 평범해 보였으나 이들에게 지진은 큰 트라우마를 남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 입에서 너무나 쉽고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으며 안타까웠습니다. 이 수업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아이들 마음 속에 있는 응어리들과 두려움들이 해소되어 지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8월 말까지 총 148명의 11~14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후에도 정부청 또는 다른 터키의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이재민들을 위한 필요사역을 찾아 계속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지만 의식하고 찾아보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눈을 감지 않으려 합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 눈 앞에 있는 이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며 할 수 있는 한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고,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음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자들에게 나타나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계속 힘을 내어 후원해 주신 마음과 정성들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들 주님 안에서 어느 상황 안에서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안디옥 개신교회 지원

NGO 굿피플과 메르신한국문화협회가 MOU를 맺고 1차 후원금을 통해 '안디옥개신교회'를 지원 (식량공급과 이재민을 위한 매트 구입)

카잔르 이재민 수용 마을 지원

1차, 카잔르 초등학교의 구호품 공급 캠프에 지원, 배게 및 침대커버, 일회용 식기류, 수건 500장, 남녀 속옷 각각 100벌, 남녀 활동복 각각 100벌

2차, 마을회관에 머물고 있는 100여명의 이재민 지원 _ 남녀 속옷, 위생용품, 옷

3차, 남녀 속옷, 위생용품, 기저귀, 빨래세제, 과자 지원

에르데미리 이재민 캠프 지원

메르신 산림연구소 휴양소를 이재민 캠프로 사용, 화장실 슬리퍼 100켤레, 빨래통 80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 주최 : 메르신 개발과 연구협회 / 메르신 한국문화협회

- 협력 : 메르신 정부청, 메르신 주 교육청, 메르신 청소년 스포츠 부

- 프로젝트 목적: 튀르키예 동남부 지진의 영향으로 메르신 KYK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11-14세 중학생 어린이 148명에게 지진 후유증에 대한 프로그램과 미술치료를 통해 상태를 호전 시키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지진 후유증을 선형적으로 다루는 것

- 프로젝트 예산: 309,110TL (약 \$15,800)

- 프로젝트 기간: 2023년 5월 15일-2023년 8월 31일



[수업 받는 아이들]

재정보고 (선교사 개인 후원 + 인터서브 본부 모금 후원)

- 2월14일 메르신 시내 및 카잔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구입 전달 (일회용 식기류, 배게 및 침대 커버) 17,387,22TL / \$924.85

- 2월27일 카잔르 구호물품 구입 전달 (속옷, 기저귀, 생리대, 빨래세제, 과자): 마을회관에서 나눠준 후 나머지는 동장에게 전달 92,175.83TL / \$4,902.97

- 3월2일 카잔르 구호물품 구입 전달 (속옷, 기저귀, 생리대, 빨래세제, 과자): 동사무소 앞에서 나눠 줌 43,363.87TL / \$2306.59

- 3월20일 카잔르 가정 방문 구호물품 구입 (활동복, 속옷, 신발, 위생용품) 28,545.97TL / \$1518.4

- 3월27일 카잔르 가정 방문 구호물품 구입 (활동복, 속옷, 신발, 위생용품, 아기용품) 22,307.04TL / \$1186.54

- 4월3일 카잔르 가정 방문 구호물품 구입 (활동복, 속옷, 신발, 위생용품, 아기용품, 침대매트)
37,252.26TL / \$1981.5

- 4월12일 카잔르 가정 방문 구호물품 구입 (활동복, 속옷, 신발, 위생용품, 어린이날 선물)
29,254.13TL / \$1556.07

물품구입 총액 **270,286.32TL / \$14,376.93**

운영비 (포장비, 운송비, 주유비, 식사비 등) **23,017.65 / \$ 1,224.34**

진행 중인 사업

프로젝트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 주최 : 메르신 개발과 연구협회 / 메르신 한국문화협회

- 협력 : 메르신 정부청, 메르신 주 교육청, 메르신 청소년 스포츠 부

- 프로젝트 목적: 튀르키예 동남부 지진의 영향으로 메르신 KYK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11-14세 중학생 어린이 148명에게 지진 후유증에 대한 프로그램과 미술치료를 통해 상태를 호전 시키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지진 후유증을 선형적으로 다루는 것

- 프로젝트 예산: 309,110TL (약 \$15,800)

- 프로젝트 기간: 2023년 5월 15일-2023년 8월 31일

- 미술작품 경매: 미술수업을 통해 만든 작품 중 14명의 작품을 선정하여 경매를 하며 경매를 통한 수입은 학생들을 위해 스포츠용품과 선물을 구입

- 자연재해에 대한 의식, 정신상태, 동기부여를 주제로 한 세미나 주최: 기숙사에 머무는 이재민 부모들을 위한 세미나

-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활동과 선물 증정

튀르키예의 I선교사

인터서브 소속으로 튀르키예에서 시리아 난민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I선교사입니다

지난 2월 이 곳 동남부 지역과 시리아 북부에 강도 7.4의 큰 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와 이웃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저희 공동체는 지진 발생 지역과는 먼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진 지역에는 공동체 원들의 가족과 친지들 뿐 아니라,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살아가고 있었기에 지진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기로 결정하고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현장에 텐트와 옷, 생필품 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과 민족을 위해 중보하고 섬겨주신 후원자님들의 헌신으로 많은 지진 피해자들이 위로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난민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재정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땅의 무너진 도시들이 다시 세워지고, 재난 피해자들의 삶이 정상화되까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땅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심이 이 곳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되기까지 앞으로도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테페에 있는 난민 성도들 중심 지원

지원내용 / 담요 200장과 200여명이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료품 지원

안테페 인근의 작은 마을들에 사는 난민 중심 지원

지원내용 / 담요 400장, 아동용 외투, 양말, 기저귀와 생리대, 아동용 우유 지원

가지안텝 주변 지역 **5개** 마을 중심 지원

지원내용 / 담요 400장(추가), 속옷 400장, 아이들 겨울 신발 400켤레

지진피해를 입은 교회 성도들의 가족과 친척 생활비 보조

지진 구호 현장 방문 지원

환자 전용 위생용품 300개, 성인 속옷 세트 남여 각각 250개, 아동 속옷 세트 남여 각각 250개,
아동 겹옷 상하 세트 남여 각각 240개, 기저귀 약 150개, 아동 음식물 세트 120개

튀르키예 동남부 홍수 지원

텐트 50개 지원, 의료부스 지원(3개월 \$15,000, 의료기기 \$3,000)

튀르키예의 P선교사

지난 2월부터 튀르키예에서 지진지역 컨테이너 가옥 설립 프로젝트를 튀르키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인회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현지에서의 분주한 상황들을 나누자면 하타이 지진 지역에 설립 중인 한국 마을은 처음 목표로 하였던 지진 가건물 200동에서 여러 기업과 단체의 지원으로 현재 360동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추가로 500동을 목표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에는 냉난방 시설과 TV 등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99년 지진 때처럼 한국 마을 안에 한국 문화원을 설립하여 한국어 교육 및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보다 넘치고 차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은 추가 목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경제적 회복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재정으로 동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터-한문화교류협회를 통한 지진지역 컨테이너 가옥 설립 프로젝트

컨테이너 가옥 **360**동 진행 중, 추가 **500**동을 목표로 모금 진행 중

하타이주(성경지명 안디옥)에 컨테이너 하나당 **\$4,500**





레바논의 H선교사

시리아 북부에서 도움을 받은 많은 이들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550가정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 지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관련된 뉴스들을 찾아보았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각국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는 튀르키예와 달리 시리아 북부는 종교, 정치적 이유로 구호팀과 구호물품 지원이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이곳을 향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더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찾다가 ***족이 사는 마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노르웨이 자매 A 양과 ***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알게 된 몇몇 *** 가정, 베이루트 *** 교회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 시리아 북부 **바 지역의 *** 마을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하나 하나 길이 열리는 과정을 인도해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후원금으로 지진으로 부상을 당한 이들 특히 수술이 급하게 필요한 이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 중 *** 마을의 B 군은 건물에 깔려 양 팔에 부상을 입어 급하게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용이 없어 무슬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들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아끼고 아끼며 수술 비용을 마련했지만 팔을 잘 쓸 수 없어 너무나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지진 구호금을 받아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 거듭 거듭 감사를 전했습니다.

시리아 북부에서 이름모를 낯선 이(stranger)로부터 이런 도움을 처음 받아본 *** 사람들은 머나먼 한국에서 도대체 누가 이런 도움을 주었는지 매우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시리아 북부에서 후원금을 전달한 이들은 한국의 “예수아(Jesus)”가 이런 도움을 주었다고 지혜롭게 대답하였고, 나중에 예수아가 성경의 예수임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레바논 현지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족 J 는 이번 지진이 발생한 이후 늘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SNS 의 지진 피해 관련 영상들을 보고 또 보면서 시리아 북부에 있는 가족들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교제하면서 점점 핸드폰은 멀리하고(걱정, 근심은 좀 뒤로하고) 조금씩 밝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이번 후원금 사용과 관련해서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 마을만을 생각하고 시작한 것인데, 현지에서는 이 후원금을 *** 마을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옆 마을로 또 다른 캠프로 점점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무슬림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기 몇 가지 나눈 것은 전체의 극히 일부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많은 가족들이 죽고 다치고 집을 잃는 등 큰 어려움을 당했고, 현재도 그 가운데 있지만 이번 후원금으로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분의 일하심 특히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차로 받은 후원금은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10 가정에 매달 조금씩(가정당 5 만원) 1 년간 지원하려고 합니다. 시리아 북부에서 도움을 받은 이들의 감사를 다시 한 번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보고

- 1차 후원금에 대한 세부내역 : 1천만원

수술비: \$2,515, 의약품: \$1,650, 어려운 가정 지원(Blessing): \$1,050,

생필품: \$830 (물, 음식, 옷 등), 방한용품: \$630 (담요, 매트리스, 난로 및 연료),

임시주거지 지원: \$450 (텐트 수리비), 환전비: \$375 총 \$7,500

- 2차 후원금에 대한 사용계획 (2024년 5월까지 예상) : 6백만원

지진피해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10 가정에 매달 50만원(가정당 5만원)을 지원